

내가 떠나간 지 3년이 흘렀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사라진 지 3년이 흘렀다. 넌 떠나간 게 아니라 사라졌다. 왜였을까. 난 아직도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낮은 비어있고 밤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있다. 내가 남겨준 흔적들을 뒤적이며 너를 찾는다. 너의 흔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나 너는 그 자리에 없다.

처음엔 단순한 사랑싸움이겠거니 생각했다. 우린 종종 작은 다툼으로 연락을 안 하기도 했으니까. 일주일이 지났을 땐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라는 마음이 생겼고, 이주일이 지났을 땐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화를 삭이고 내용 없는 사과를 전했다. 하지만 난 여전히 네가 화난 이유를 알지 못한다. 난 그 이유는 끝내 알 수 없었는데 내가 그대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고 네가 화난 게 아니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화가 오기로 변했고, 오기가 답답함으로 변했고, 답답함은 걱정으로 변했다. 내가 걱정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의 하루는 지옥이 되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나는 생전 연락하지 않던 너의 부모님과 언니에게도 물었으나 답이 없는 대답, 기계음성만 돌아왔다. 너의 가족들도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환상을 만들어낸 것인가.

너와 자주 다툼 이유는 우리 관계의 **거리** 때문이었다. 나는 우리 사이에 **거리**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넌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럴 때마다 내가 나에게서 멀어진 기분이 들었다. 난 우리 사이에 생긴 그 공백이 싫어서 말도 안 되는 때를 썼고 그건 늘 우리 다툼의 발단이 되었다.

그게 원인이었을까? 내가 너에게 가까워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아예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스스로는 도저히 답을 알 수 없어 먼저는 너의 집을 찾아갔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던 너의 집의 정확한 호수를 알지 못해 경비원에게 물었다. 경비원은 날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으나 나의 물음에 의아한 표정만 짓고 대답했다. ‘그런 사람은 여기에 안 사는데요?’

결국 경찰서를 찾아갔다. 실종신고를 하기 위함이었는데 경찰은 가족이 아닌 이상 실종신고를 할 수 없다 말했다. 나는 답답함에 행패를 부리고 싶었지만 경찰서라는 장소에서 그럴만한 껍도 없었기에 ‘일단 알겠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도대체 너는 어디에 있는 걸까? 아니, 너는 존재하기는 했던 걸까? 너의 흔적은 내게 있으나 존재했다는 실증이 없다. 그 흔한 사진 한 장 없다니.

내가 떠난 이후부터 모든 것이 이상하다. 내 삶에서 너라는 조각만 뚝 떼어낸 것처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굴러가고 있다. 내가 없으면 내 삶은 멈춰져버릴 것 같았는데 아무 문제없이 살아지다니.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라면 전화를 받지 않았을 나일 텐데 ‘혹시 필요한 전화일 수도 있으니까 받아봐.’라는 너의 말이 떠올라 응답 버튼을 눌렀다. 응답 버튼을 누르고 한참을 말없이 기다렸는데 상대도 말이 없었다. 그 공백의 답답함을 또 참지 못한 나는 먼저 말했다. ‘여보세요.’ 그러자 그때서야 상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엇된 목소리였다. ‘누구세요?’라고 묻자 그 아이는 예의바르게 대답했다. ‘저예요. 저 여기에 있어요.’ 누군가 망치로 내 머리를 때린 것 같았다. 나는 순간 휘청했으나 손으로 벽을 짚고 생각했다. 내가 아는 목소리였다. 엇된 목소리였으나 이건 그녀의 목소리다. 내게서 사라진 그녀 말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 혹시...’ ‘맞아요. 저예요. 그렇지만 아저씨가 생각하는 저는 아니예요. 저는 6살이거든요.’ 이걸 무슨 소리일까. 이것도 꿈일까. 나는 꿈속의 꿈을 꾸고 있나. 그렇기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분명하고 또렷했다. ‘무슨 말이야? 너 대체 누구야? 어디서 전화하고 있는 거야?’

나의 기억이 거슬러 올라간다. 1998년. 내가 6살 때였다. 부모님과 캐나다에서 살고 있던 나는 좋아하던 베이커리 가게가 있었는데 주말이면 부모님이 나를 그곳에 데리고 가서 원하는 것을 하나씩 사주셨다. 그때마다 나는 맛보다 가장 큰 것을 골랐는데 바로 호박파이였다. 가장 큰 것을 사야 일주일동안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주말에도 부모님은 나를 베이커리로 데려다주었고 나는 고민하는 척하다 결국 호박파이 앞에 섰다. 호박파이를 짚으려는 순간 그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 시선을 따라 옆을 돌아보니 나와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있었다.

그 아이가 말했다. ‘그거 살 거야?’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